

원불교 교화의 핵심원리 교화단 조직과 훈련

진산 박인광 교도(인천교당)

이끄는 말

⇒ 2만 단장 훈련에 대한 소감(개인적 입장)

2) 단장님들에 대한 소감 중에서

※ 놀 모델의 부재로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

(수직적 관리구조는 되는데 수평적 생산 구조로 확산이 되지 않음)이라 하셨는데 원불교 100년이 지나도록 교화를 해 왔는데 그 100년이 지난 지금 놀 모델이 부재하고, 수직적에서 수평적 관리 구조로 확산 되지 않는다 중에서

질의 :

① 놀 모델 부재의 원인은 무엇이며?

② 그 해소책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시는지?

③ 수평적 관리 구조로 확산을 위한 혁신 방안은 있는지?

④ 그 확산되는 수평적 관리 구조는 대종사님께서 내려주신 10인 1단 교화단 조직법에 부합되는지 여부?

※ 단원관리에 단계별 지표 제시가 없어서 일방적인 교화단 운영

(단장과 단원이 다 부담 느낌)에 대하여

질의 :

① 원불교 헌규 중에서 교화단 규정에 정하여 진 규정대로 단장들이 숙지하고 단원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부?

② 교화단 규정을 숙지하고 이해하고 있는 데에도 단장들이 단계별 지표 제시가 없어서 부담스럽다고 생각한다면 발표자 이신 교무님께서 생각하는 그 지표는 현재의 헌규(교현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에 근거하여 원불교가 교화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떠한 별도의 단계별 지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하시는지?

※ 다음 질의에 앞서서 『원불교 헌규』 중에서 교화단 규정을 발췌하였습니다.

『원불교 헌규집』 「교당규정」 중

제5장 교화

제24조(교화단)

- ① 교당의 교화는 10인 1단의 교화단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감(주임) 교무는 교당교화단의 총단장이 된다.
- ③ 교화단의 운영과 활동 등은 교화단 규정에 따르며, 입교·교화·훈련·신앙·봉·공 활동의 중심이 된다.
- ④ 단장은 단원들의 신앙과 수행을 지도하며,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담당교무와 상의하여 처리 한다.
- ⑤ 단장은 매월 교화단회를 통하여 단원들의 공부와 사업을 향상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 ⑥ 교화단이 많을 경우 단장단을 조직한다.
- ⑦ 단장단 회의는 월1회 실시한다.

『원불교 헌규집』 「교당 교화단 규정」 중

제3장 단장·중앙

제11조 (단장 중앙의 업무)

- ※ 단장은 단원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일을 하며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담당교무와 상의하여 처리한다.
 1. 단원의 신앙과 수행지도.
 2. 단별 훈련 실시.
 3. 단별 각종 활동 전개.
 4. 각종 모임 출석 독려.
 5. 상통하달의 연락.
 6. 정기 또는 수시 순교.
 7. 단관리와 일원세계 건설에 필요한 일.
 8. 기타 단내·외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파악하여 신속히 대처해 나간다.

제4장 단회 제15조 (진행) 단회는 다음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1. 연도초의 모임에서는 각 단원의 신년도 공부·사업간 실천계획을 천명 약속하고, 단의 연중 계획을 수립하며 정진기도를 한다.
2. 중반 모임에서는 각 단원의 연도초 약속의 추진 상황을 점검 독려하고, 단의 계획 추진상황을 반성 평가하여 필요시 계획을 조정하고 보은기도를 한다.
3. 연도 말 모임에서는 각 단원의 연도초 약속 이행 내용을 점검하고, 단의 연중 계획 추진 상황을 점검 평가하며 참회기도를 한다.

제5장 훈련 제17조(훈련) :

단원의 훈련은 정전의 훈련법과 교규의 훈련규정에 근거 하여 다음 조항을 실시 한다.

1. 법계에 따른 단계별 교도훈련.
 2. 교리의 훈련(독송·해의·실천).
 3. 예법의 훈련(예법의 해의·실천보급).
 4. 비교도 교화훈련.
 5. 생활개선훈련(가정·마을·직장).
 6. 단 활동 전개를 위해 필요한 훈련.
 7. 보은봉공 활동을 위한 훈련
 8. 신앙생활 지도.
1. 교화단에 대한 의식 전환(신념화)
 2. 교당에서 교화단 운영의 내실화 방안
 3. 교화 구조 전환을 위한 제안」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교화단에 대한 의식 전환(신념화)

질의 : 발표자께서는 현재의 원불교 교화단 구조가 대종사님께서 교법에 밝히신 대로 10인 1단의 교화단 조직법에 부합 된다고 생각 하시는지?

- ① 부합 된다고 생각 하신다면 어떠한 점에서 부합 되는지?
 - ② 부합되지 않는다면 왜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 하시는지? 그 이유와
 - ③ 부합 되도록 하는 방안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 이상 3가지 질의는 교화단에 대한 의식 전환에 대하여 반드시 필요함.

2. 교당에서 교화단 운영의 내실화 방안

질의 :

- ① 근래에 들어 큰 교당에서는 단장들로서 구성된 항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10인 1단 조직법에 의하면 최초 단은 “각”단이 되며 현재의 수위단이 바로 이 각단이라고 합니다.
각단 단원은 항단의 단장이 되며, 현재의 각 교구장님들이 항단 단장님 이십니다.
항단 단원은 저단 단장님이 되며 대부분의 각 교당의 교무님들은 저단에서의 단원입니다.
그렇다면 “교무님이 교당 교화단의 총 단장”이라는 원불교 현규 교당규정에서 본다면 현재 몇 개 교당에서 시행하고 있는 “항단” 제도는 원불교 법 규정을 정면에서 위배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저단(지구장님 즉 교감님이 총단장 이실 경우)” 또는 “방단(저단 단원이신 교

무님이 총단장일 경우)" 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발표자 이신 교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 ② 원불교는 분명히 10인1단의 교화단 조직법에 의하여 교화단을 조직하고 운영 해야 함에도 법 규정을 보면 “출가 교화단 규정(현규 제 1장 조직)” 이 있고 제 2장 조직에는

제5조(조직) 출가교화단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 ① 출가교화단은 角團·亢團·氐團 등 28수에 따라 조직하며, 시행의 편의상 角團은 正首位團·亢團은 次位團·氐團은 二次位團…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② 방위는 乾·坎·艮·震·巽·離·坤·兌(건감간진손이 곤태)의 팔방으로 구분하며, 단장·중앙 각 1人을 가하여 10人の 조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행의 편의상 방위를 1, 2, 3, 4, 5, 6, 7, 8로 구분할 수 있다.

제6조(조단) 출가교화단의 조단은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 ① 角團은 최상위 교화단으로서 종법사와 정수위단원으로 한다.
② 亢團은 정수위단원과 봉도수위단원과 저단 단장으로 한다.
③ 氐團 以下 역시 출가교역자 수를 따라 下位團을 조단해 간다.

제7조(成團) 角團은 수위단원 선거 후 정수위단원이 구성된 다음, 亢團과 以下團은 교단 정기 인사 후 성단을 하여 봉고식을 올린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현규 상으로는 “재가 교화단 규정”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교당 규정 속에서 “교당 교화단”이 규정 되어 있지요.

질의 : 질의해야 할 내용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 ① 원불교 교화의 핵심원리이자 교화단 조직과 훈련에 대하여 연구 발표하신 교무님께서는 이 문제(재가 교화단 규정은 없음)를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② 재가 수위단(각단에 해당 함)이 되는 “봉도 수위단”이 존재 합니다.
“각”단에 해당하는 재가 교화단인 봉도 수위단이 있는데, 그 하위단 항단... 등이 없는 현실에서 재가 교화단 조직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이 문제에 대한 연구와 해결 노력이 없이 과연 “성공적인 교화단” 대한 연구 라고 할 수 있는지 감히 묻고 싶습니다.

3) 교화단을 위한 교무의 역할

4) 파트너쉽(Partnership)

질의 : 3), 4)번 내용은 묶어서 질의 합니다.

① [이 법은 오직 한 스승의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을 고루 훈련할 빠른 방법이니, 몇 억만의 많은 수라도 가히 지도할 수 있으나 그 공력은 항상 아홉 사람에게만 드리면 되는 간이한 조작이니라.] 서품 6장의 법문입니다.

혹시 지금 교화하고 계시는 상계 교당에서는 이 법문에 근거하여 최초 아홉 사람을 교무님이 담당하여 직접 지도하고 계시는지요?

교무님께 지도 받은 아홉 단장님들 이라면 그 이하 단원들을 원만히 지도할 능력을 갖출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상계교당은 전 교도의 단장화가 가능할 것이고 교단의 2만 단장 양성은 성공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② 파트너쉽을 말씀 하셨습니다. 교무와 교도가 함께 하는 파트너쉽 인가요?

교무는 지도만하고 출가교화단만 소속 될 뿐, 재가교도(단원)들 끼리의 파트너쉽 인가요?

※ 마지막 질의입니다.

발표내용 중 이끄는 말에서 2만 단장 훈련에 대한 소감을 말씀 해주셨습니다.

종법사께서 2만 단장을 양성하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로 교단적으로 단장 훈련을 실시했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 이후 백년성업회에서는 원기 96년도 교화단 마음공부 책자 표지 안쪽 첫머리에 원불교 100년 비전을 실었고, 그 내용은 “교화단의 창의적 운영과 훈련 강화로 2만 교화단을 결성 하여 전법 교화에 새 전기를 마련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종법사께서는 “2만 단장 양성”을 말씀하셨는데 100년 비전은 “2만 교화단 결성”으로 바뀌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 때부터 우리 교단은 2만 교화단을 결성하는 비전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달려 왔다고 생각 합니다.

아마도 2만 교화단(2만 교화단은 20만명의 교화단원이 필요함)이 결성 되면 단장 중앙은 그 20만명 속에서 1인 씩 가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질의 :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은 두 가지가 병행 되어 성장 되면 좋겠지만, 우선 순위를 따진다면 교무님께서는 질적 성장이 되는 2만 단장 양성과 양적 성장을 뜻하는 2만 교화단 결성 중에서 어떤 내용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혹 2만 교화단이 결성되면 단장은 저절로 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 하시는지요?

- ① 2만 단장 양성 이라면 현재 법회 참석 숫자가 5만 명이 안되는 시점에서 4-50%를 차지하는 2만 단장을 어떤 지도법으로 몇 년이 지나야 양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 ② 교무님들이 2만 단장 훈련에 의존적이라고 하셨는데, 참으로 우리 교단이 2만 단장 훈련에 의존을 했다고 할 만큼 열의를 가지고 했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의존을 했다고 생각 하시는 근거는?

감사합니다.

인천교당에서 중앙을 거쳐 30대 중반에 단장에 임명된 이후 현재까지 25년 이상 단장 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교화단이야 말로 대종사님의 일대 경륜을 실현시킬 수 있는 오직 단 하나의 조직법이라고 믿기에 교도 회장을 수행하면서도 그 교화 단장 만큼은 대종사님의 제자로서 어떤 일이 있어도 수행해야 하는 천직임을 믿는 교도입니다.

그 만큼 교화단에 대하여 관심이 많고, 그 만큼 현재 우리 교단의 미래에 대하여서는 더더욱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교화단장 이기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천교당 교화 1단 단장 박 인광 합장